2013 미술시장

박수근 작 '빨래터'

김환기 작 '꽃과 항아리'

김환기 화백, 국내 작가 작품 거래가 총액 1위

28점 32억4천만원 달해
박수근, 호당 거래가 최고
지역출신 천경자·오지호 약진
리히텐슈타인 '토마토와 추상'
지난해 26억4천만원 최고가

최근 한국 미술시장이 끝을 모르는 침체기로 접어든 가운데 최근 10년간 호당 작품 가격이 가장 높은 국내 10대 작가에 지역 출신인 김환기, 천경자, 오지호 화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천경자 화백은 최근 10년간 생존 작가로는 호당 작품 가격이 가장 높은 작가였으며, 같은 기간 작품 가격 상승률도 가장 높은 작가로 분석됐다.

◇국내 미술시장 독보적 1위 박수근=최근 한국아트벨류연구소(소장 최정표 건국대 교수·이하 연구소)가 내놓은 '2013년 한국그림시장총결산'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04년~2013년)간 국내 화가 중 호당 작품 가격이 가장 높은 작가는 박수근 화백이었다. 뒤를 이어 이중섭, 도상봉, 김환기, 천경자, 장욱진, 유영국, 이대원, 오지호, 이우환 화백이 이름을 올렸다.

이대원 작 '농원'

이 자료는 연구소가 국내 양대 미술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과 K옥션에서 낙찰된 작품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옥션과 K옥션은 지난해 낙찰총액에서 각각 384억원과 201억원을 기록하는 등 국내 미술시장 작품의 80% 이상이 두 회사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에 박수근 화백 작품의 가격지수는 다른 작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구소가 작품가격 1위인 박수근의 가격지수를 100으로 놓고 다른 작가들의 가격지수를 환산한 결과 김환기(7.32), 천경자(6.06), 유영국(5.66), 이대원(5.60) 화백 순으로 나타났다.

박수근 화백은 최근 10년간 작품 가격 상승률에서도 432.03%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천경자(219.06%), 이왈종(194.29%), 이우환(159.71%), 김창열(150.77%) 순이었다.

1998년 이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품은 2007년 45억2000만원에 낙찰된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37 x 72㎝)였다. 김환기 화백의 초기 대표작인 '꽃과 항아리'(98 x 147㎝)는 세 번째로 비싼 작품이었다. 같은 기간 최고가 10대 작품에는 박수근,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각각 5점, 3점씩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낙찰총액 1위 김환기=김환기 화백은 지난해 거래된 국내 작가 작품 거래가 총액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국내 8개 경매사의 지난해 경매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2013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 따르면 김환기 화백의 작품은 지난해 모두 28점이 거래됐으며 낙찰총액은 32억3814만원이었다. 이어 이우환(44점·28억8036만원), 이대원(58점·23억866만원), 김창열(50점·20억496만원) 화백 순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작가를 포함했을 때는 쿠사마 야요이(86점·37억9618만원), 로이 리히텐슈타인(7점·33억594만원)이 각각 1위와 2위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2년 1위였던 김환기 화백은 3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품은 서울옥션 홍콩에서 26억4200만원에 거래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토마토와 추상'(101.6 x 152.4㎝·1982)이었으며, 국내 작가 작품 중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압수한 '전재국 미술품 컬렉션'에 포함돼 있던 이대원 화백의 '농원'(90 x 194㎝·1987·6억6000만원)이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호당 가격지수를 비교한 '2013 KYS미술품가격지수'에서는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 호당 2억991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2위 이중섭(3166만원), 3위 김환기(2688만원) 화백 순이었으며, 천경자 화백은 1532만원으로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김보현 미술관'을 아세요?

평안남도 출신의 천재화가 이중섭(1916~1956)은 6·25 동란기인 1951년 삶과 예술의 자유를 찾아 제주도로 남하했다. 서귀포 칠십리의 물새소리를 들으며 가족들과 지냈던 1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올해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8년이 지났지만 서귀포에 가면 아직도 화가의 체취를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제주시가 지난 2002년 개관한 이중섭 미술관 덕분이다. 제주시는 생애 한 토막을 서귀포의 초가에서 보낸 고인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미술관을 세웠다. 개관 이후 다양한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매년 10만 명이 찾는 문화명소로 키워냈다.

대전시 서구 만년동 갑천변에 자리한 고암 이응노(1904~1989) 미술관 역시 예술가와의 '귀한 인연'이 결실을 맺은 경우다. 충남 홍성군 출신인 그가 '타향'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건 초창기 대전에서 작품활동을 한 데다 1967년 동백림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한 '과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고암 탄생 100주년을 맞아 홍성군이 생가 주변에 기념관을 추진하려고 하자 대전시가 부지와 57억 원의 예산을 내걸고 유족 측을 설득해 미술관 유치에 성공했다. 이후 대전시는 매년 소장품전과 예술교육 등을 통해 미술관을 문화사랑방으로 가꾸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와 공동으로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외연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대전에 이응노 미술관이 있다면 광주에는 '김보현·실비아 왈드 미술관'(김보현 미술관)이 있다. 하지만 그 위상은 사뭇 다르다. 김보현 미술관은 지난 2011년 조선대 미대 창립자이자 초대 교수를 지냈던 재미작가 김보현 화백과 부인 왈드여사의 기증작 400여 점을 전시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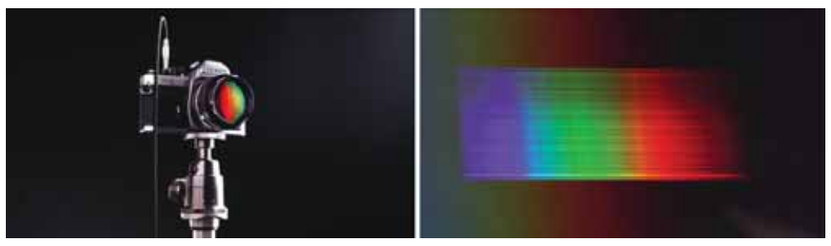
1946년 조선대 개교와 함께 광주에 정착한 그는 1955년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지역인재들을 가르치는 데 헌신했다.

당초 조선대는 유명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해 명품미술관 건립을 약속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조선대 미대의 한 공간을 리모델링했다.

지난 7일 김보현 화백이 97세를 일기로 뉴욕 맨하탄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신문에서 생전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문득 3년 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일이 떠올랐다. 세계 3대 미술관에서 '귀하게 모시는' 아티스트를 정작 지역에서 '홀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실제로 광주에 김보현 미술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그나마 임팩트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 존재감이 거의 없다. 생전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자랑스러워했던 거장에 대한 예우가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지….

〈편집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삶의 풍경 금호갤러리 청년작가 전명은전 19일까지


전명은 작 '사진은 학자의 망막-송재원, 태양스펙트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가 12~19일 '2014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 선정 작가 첫 번째 전시로 사진작가 전명은씨의 '사진은 학자의 망막'전을 연다.

중앙대 조소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8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한 전씨는 그동안 '본다'는 행위의 본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전작 '나는 본다'에서 수화언어와 청각장애인의 독보적인 시각 세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전씨가 전시에서 선보이는 '사진은 학자의 망막' 연작은 천문사진과 천문장비를 소재로 아마추어천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보고자 하는 욕망과 열정을 담은 작품이다.

작가는 전국에 있는 9명의 아마추어천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들을 완성했다. 아마추어천문가가 촬영한 천문사진과 작가가 촬영한 천문장비 사진을 병렬시킨 작품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6월6일 있었던 '금성 태양면통과현상'을 둘러싼 사진 연작, 한 장의 사진을 오브제로 사용한 프로젝션 설치작업도 함께 소개한다.

전씨는 "사진은 인간이 경험해 본적 없는 전혀 새로운 시각 세계를 드러내 보여줬고, 사람들은 사진을 통해 보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천문장비는 천문가의 또 다른 눈인 셈이다.

문의 062-360-8436.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교보문고 팟캐스트 '낭만서점' 시작

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가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출판사 위즈덤하우스가 '빨간책방'을 시작한 이후 창비, 문학동네 등이 가세하면서 보편화된 팟캐스트가 이번에는 대형 서점까지 가세했다.

교보문고는 11일 작가 정이현 씨와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진행하는 '낭만서점'을 첫 방송했다.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되는 '낭만서점'은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두 진행자가 뽑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2부에서는 게스트가 추천한 책을 이야기한다.

팟캐스트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듣는 라디오 방송을 말한다. 제작자가 녹음한 것을 올리면 원하는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내려받을 수 있다.

대형서점이 팟캐스트 영역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으며, 독자들과 폭넓은 소통의 통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박성천기자skypark@

신축원룸매매(전대1분)
★전대상대2분상가원룸(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룸 21개(1층 상가 2칸, 룸 18개 4층 주택)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엘레비이터 완비, 최고위치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융 3억, 보 1억)
★전대정문후문1분상가원룸★
신축 4층 룸 12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420만 매가 6억7천 (보 5천, 융 1억 2천)
★화정동5층상가원룸(신동아아파트정문)★
룸 27개, 1층 상가 80평(1층상가, 2층룸 9개, 3층룸 9개, 4층룸 9개)
월수익 1400만(1년 1억7천 수익) 매가 21억(보2억, 융 7억)
★수완지구상가(수익형,확실보장)★
매매: 1층상가(17.5평) 대방5차 A후문 매가 3억 5천(보2천, 월130만, 융 2억)
3층상가(85평) 모아엘가 A후문 매가 3억 5천(보3천, 월200만, 융 2억5천)
3층상가(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 매가 2억 8천(보3천, 월150만, 융 1억5천)
임대: 1층(18평) 대방5차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45평) 모아엘가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보3천, 월150만, 분할가)
★빌라형원룸매매(쌍촌동운천역2분)★
3천소액투자노후보장(연금처럼수익발생)
·원룸형매매 3800만 주택 11평 (보 200만, 월 30만, 융 1,000만)
·원룸형매매 4000만 주택 12평 (보 200만, 월 32만, 융 1,000만)
·투룸형매매 4800만 주택 14평 (보 300만, 월 40만, 융 1,500만)
·원투룸 임대 즉시입주가 풀옵션 (원룸 보 200만, 월30만/투룸 보300만, 월 40만)
신한공인중개사
☎062)521-1060, 010-6677-0144

여수 상업지 토지매매
여수시 중앙동 상업지 코너
기업은행뒷
(옛 재중병원자리)
중심상업 쇼핑거리
154평
(매가 8억2천)
최고위치
신축 5층 이상 가능
(건폐율 90%,
용적률 800%이상)
옷메이커,
커피숍, 편의점
신축 가능
(주)대화이앤씨
010-6670-9800
010-6677-0144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급매 광주은행 본점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급매, 지하철 쌍촌역 사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평)병원·사옥·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
◦ 쌍촌동 2종 주거지 674㎡(204) 다가구, 다세대 적합 매입가에 매도 3억1500만원 투자에도 적합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급매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접 대지 149평 건평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법인이전 7억6천
◦ 신축 쓰리룸 건물 북구 우산동 대지 516㎡ 12세대 8억9천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출6억2천 매도 8억3천
◦ 사찰적합 건물 함평군 월야면 땅 2657㎡(804)건물 2동 57평 은행 2억 기도원 할수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신축식당 대지 3537㎡(1070)건물 148평 은행 3억 임대는 5천에 3백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5억8천
◦ 북동 상업지 992㎡(300)오피스텔, 생활주택 등 다용도 8억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성공을희망합니다
상가/건물
▶ 상무지구 신축건물 매 75억
▶회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구분점포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명프렌차이즈 입점)
▶계림동사우나건물-일부층 원룸 매 17.5억(보8천,월8백,융9.5억 포함,직영수입 월천만)
▶월계동LC타워 2층상가 960㎡ 매 19억, 분할가(대형병원, 학원, 외식프렌차이즈 적합)
▶서구 아파트상가 1,800㎡ 매 10억(보 1.1억, 월610만, 융5.9억포함)
▶ 신창동 상가건물 매매 27억, 매매 15억
대지/전답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6억
▶서구 마륵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매 21억
▶북구 용두동 대지 2,050㎡ 매매 6.9억
▶북구 문흥동 교도소부근 잡종지 6,300㎡ 매매 50억
▶북구 신안동 대지 3,100㎡ 매매 36억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29,800㎡ 39억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전 17,000㎡ 매매 5.2억
기 타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융 5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상담, 접수 환영합니다
서구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급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 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필,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접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